**꼬리 문 피서 행렬**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도심에서 교외로 빠져나가는 차량이 홍수를 이뤘다. 2일 광주시 소태 IC에서 화순과 보성, 장흥 방면 등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반면, 반대 차선은 한산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전남 해수욕장 50만 인파

## 완도 명사십리·영광 가마미 등 피서객 '북새통'

40여일 남짓 '심통'을 부리던 장마 전선이 물러나고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를 보이면서 전남지역 주요 해수욕장은 피서인파로 크게 붐볐다.

완도 명사십리의 경우 2일에만 13만명이 찾았고 영광 가마미에도 6천명이 다녀가는 등 도내 해수욕장 62곳에 올해 하루 최대인 50만명(추정)의 피서객이 몰렸다.

또 여객선을 이용해 전남 서남해권 섬을 찾은 피서행렬이 1일 하루만 7만명을 넘어서면서 여객선터미널과 주요 해수욕장 곳곳에서는 극심한 체증 현상이 빚어졌다.

2일 오후 1시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8월 첫째 주 휴일인 이날 백사장(길이 3.8㎞, 너비 150m)은 형형색색의 파라솔이 가득했고, 바다에는 '노란 튜브 물결'이 출렁였다.

수영복 차림의 피서객들은 백사장 곳곳에서 일광욕을 즐겼고 수상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은 에메랄드 빛 물결을 가르며 두둥실 하늘로 치솟았다.

아울러 해변 곳곳에서는 모래 조각 전시와 공연 등이 열려 더위에 지친 피서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줬다. 오랜 장마 뒤에 찾아온 무더위로 인해 해수욕장 곳곳이 피서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 것이다.

이날 하루 명사십리를 찾은 피서객은 13만명. 지난 5월 29일 개장 이후 하루 최대 인파다. 연일 계속된 장맛비로 울상을 짓던 민박·식당 등 주변 상가 주인들도 모처럼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올랐다. 이곳에서 운영 중인 민박 48곳과 식당 13곳은 쉴새없이 밀려드는 손님들을 맞느라 '즐거운' 비명을 내질렀다.

민박집 주민 이정길(56)씨는 "그동안 애꿎은 장마 때문에 매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모처럼 맑은 날씨가 찾아와 장사할 맛이 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 해수욕장도 더위를 피하기 위해 찾아온 피서객들이 길이 1㎞의 백사장을 가득 메웠다. 주차장(주차 면수 1천대)도 피서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뤘으며, 인근 도로 곳곳도 이중삼중으로 주차된 차들로 가득했다. 더이상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한 피서객들은 아쉬운듯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이날 각지에서 몰려든 피서 차량은 2천여대, 피서 인파는 6천여명에 달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피서객이 300~400명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무려 20배 가량 인파가 늘었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함평이 34도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광주 31.3도, 영광 30.3도, 완도 28.5도의 분포를 나타냈다.

기상청은 3일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한 차례 비가 온 뒤, 이번주엔 30도 안팎의 '가마솥' 더위가 이어져 올 피서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완도=이종행·정은조기자 golee@

### 광덕고·문태고·순천여고·안산중

# 내년부터 전과목 이동수업

## 전국 45개 혁신학교 선정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교실제에 따라 학생들이 교실을 옮겨다니며 수업을 듣는 '교육과정 혁신학교'로 광주 광덕고와 전남의 문태고(목포), 순천여고, 안산중(여수) 등 광주·전남 4개교를 포함한 전국 45개 중·고교를 선정했다.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게 된다.

교과교실제는 과목별로 전용 교실을 두고 학생들이 미국, 유럽, 일본 등처럼 수업 시간표에 따라 교실을 이동하면서 수업을 듣게 하는 교육 방식이다.

교과부는 이 제도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한 162곳 중 시·도교육청 심사를 통과한 66개교 가운데 중학교 17곳과 고교 28곳을 교과교실제를 전면 도입(A타입)할 학교로 최종 선정했으며 교실 증·개축비, 학습 기자재 지원비 등 올해 15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학교는 대부분 학생이 거의 모든 과목에 걸쳐 이동수업을 받고 수업시수를 자율 편성해 특정 과목을 학년·학기별로 몰아서 듣는 집중이수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중 3과목 이상에 대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특화된 교육과정을 짜며 학교 밖 교육기관과 연계한 과정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다.

교과부는 내년에는 이들 학교에 교사 및 행정보조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공시 정보에 명기해 입학사정관 등이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참여 교사에게는 인사상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3년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내년부터 지정 학교도 늘릴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탱크로리·승용차 충돌

## 교통사고·화재 잇따라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에서는 교통사고와 화재 등 각종 사고가 잇따랐다.

2일 오전 9시30분께 광양시 옥곡면 굴다리 옆에서 황모(48)씨가 몰던 승용차가 굴다리 옆에 세워진 옹벽과 충돌, 황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앞서 지난 1일 새벽 2시10분께 순천시 황전면 한 도로에서 최모(58)씨가 운전하던 탱크로리와 김모(여·39)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충돌, 최씨와 김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가 전복되면서 아스팔트유 1만5천ℓ가 유출돼 경찰과 소방대원 등이 방재작업을 벌였다. 같은 날 정오께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 교차로에서 강모(45)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정모(38)씨가 운전하던 덤프트럭과 부딪혀 강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 2일 새벽 2시50분엔 나주시 성북동 모 카센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 화재로 2층짜리 조립식 건물(면적 215㎡)과 안에 있던 기계류 등이 불에 타 1억4천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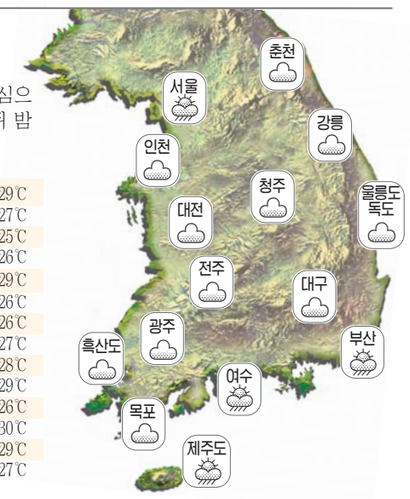
## 오늘 날씨

피서길 한때 비

흐리고 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비가 내린 뒤 밤늦게 개겠다.

해뜸 05시 43분 / 해짐 19시 43분 — 달뜸 17시 53분 / 달짐 02시 48분

| | | |
|---|---|---|
| 광 주 | 흐 림 | 23/29℃ |
| 목 포 | 흐 림 | 23/27℃ |
| 여 수 | 흐리고 한때 비 | 22/25℃ |
| 완 도 | 흐리고 한때 비 | 22/26℃ |
| 구 례 | 흐 림 | 21/29℃ |
| 해 남 | 흐리고 한때 비 | 22/26℃ |
| 장 흥 | 흐리고 한때 비 | 22/26℃ |
| 고 흥 | 흐리고 한때 비 | 21/27℃ |
| 순 천 | 흐리고 한때 비 | 22/28℃ |
| 영 광 | 흐 림 | 22/29℃ |
| 진 도 | 흐리고 한때 비 | 22/26℃ |
| 전 주 | 흐 림 | 22/30℃ |
| 남 원 | 흐 림 | 21/29℃ |
| 흑산도 | 흐 림 | 22/27℃ |




| 〈오전〉 바다 | 풍향 | 파고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동~남동 | 0.5~0.5m |
| 먼바다 | 동~남동 | 0.5~1.5m |
| 남해 서부 앞바다 | 동~남동 | 1.0~1.5m |
| 먼바다 | 북동~동 | 1.0~2.0m |
| 〈오후〉 바다 | 풍향 | 파고 |
| 서해 남부 앞바다 | 동~남동 | 0.5~0.5m |
| 먼바다 | 동~남동 | 0.5~1.5m |
| 남해 서부 앞바다 | 동~남동 | 1.0~2.0m |
| 먼바다 | 북동~동 | 1.5~2.5m |

| 자외선지수 | 식중독지수 | 불쾌지수 |
|---|---|---|
| 보통 | 경고 | 높음 |

| | 밀물 | 썰물 |
|---|---|---|
| 목포 | 00:43 / 12:24 | 06:16 / 18:01 |
| 여수 | 07:07 / 20:18 | 01:47 / 13:30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 짜 | 4(화) | 5(수) | 6(목) | 7(금) | 8(토) | 9(일) |
|---|---|---|---|---|---|---|
| 날 씨 | | | | | | |
| 최저/최고 | 23/29 | 22/31 | 23/31 | 23/30 | 23/31 | 23/31 |

# 허위진단서 위조 판매 중국인 유학생 징역형 광주지법

인터넷을 통해 허위 진단서를 유통시켜 온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2일 허위 진단서를 꾸며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판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유모(2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모(여·25)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10일 이내에 강제 추방한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조만간 국외로 추방될 처지에 놓였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